

SW業體 등록제도 改善제안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현행 소프트웨어 업체의 일원화된 등록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용역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대형시스템 통합 능력이 있는 '종합소프트웨어 통합 용역업'과 중소기업형의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소프트웨어 용역업'은 등록허가제로 하고 PC수요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로 PC소프트웨어를 개발, 취급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인 경우는 등록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누구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전문소프트웨어 용역업'은 자본금이나 개발요원의 수적인 제한보다는 기술사자격사 1명이 10여명 이상의 전문개발요원을 확보, 특정분야의 응용기술을 전문화하여 고유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신고제인 소규모 소프트웨어업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대형프로젝트 참여 보다는 국내 대형컴퓨터하드웨어제조업체나 '종합 소프트웨어 통합 용역업'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며 대형 업체에서도 공동개발단지 조성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지원관계를 개선하여 간다면 앞으로 수백, 수천개의 소규모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생기더라도 난립이란 표현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崔今永
동의컨설팅 대표이사

수주활동에서도 '종합소프트웨어통합용역업' 업체는 일정규모 이하(예: 건당 연1억원 이하)의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지양하고 '전문소프트웨어용역업' 업체들은 일정규모 이상(예: 건당 연3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업체는 수주된 프로젝트의 설계감리 등을 위주로 하며 프로그램 단위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외주 가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소프트웨어업체의 수평수직분업화, 협동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